한 형 조

무문관 탐방

30

돈오와 점수

불교에는 여러 병통이 있지만 자력(自力)에의 과신이 심어준 병통도 적지 않다. 기독교나 여타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인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너의 자심에 깃든 불성을 파지하라. 다름 아닌 네가 곧 부처이니라"는 휴머니즘의 천양에 학인들은 자칫 들뜨기 쉽다.

"아하,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곧 법신의 현현이고, 나의 고뇌와 방황, 욕망의 흔적까지가 곧 보리(菩提)란 말이렸다. 언필칭 돈오(頓悟)라! 깨달을 너도 깨닫는 나도 없으니 가부좌는 무엇하며, 육도(六度)의 바라밀(波羅蜜)은 웬 법석이더냐."불교의 교설은 이런 레세페르가 말류적 징후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언제나 품고 있었다.

특히나 선이 그랬다. 잠든 영성을 일깨우기 위해 높이든 돈오의 기치가 세력을 얻을 때쯤 이같은 위험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점수(漸修)는 그 위험을 차단시키기 위한 유력한 장치였다. 깨달음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도 뼈를 깎는 자기훈련이 필요하다. 그 성취는 독좌대웅봉(獨坐大雄峰)의 고독과,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용기를 가진 예외적인 인간에게만 허여된 희귀한 과보(果報)다. 네가 부처라고 해도 그 부처는 지금

그림 · 이준석

는 숨을 죽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혼비백산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부모를 만나거든 그들도 함께 베어라. 그때에야 너는 절대로서 진정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임제는 살아있는 절대를 섬뜩하고도 과격한 방식으로 천양한 사람이다. 운문 또한 이 점에서는 임제에 뒤지지 않는다. 어떤 점에서는 한술 더 떴다고 할 수 있다. 살아 거치적거리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자들까지도 그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다. 창시자인 석가는 물론, 왔다 간 여래와 이제 올 보살들까지 그의 허끝에서 목숨을 잃는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말하는 석가를 때려잡아 굶주린 개에게 던져주겠다"는 다짐은 약과이다.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똥막대기"라고 답한 그 신성모독이야말로 돈오적 발전의 최후의 덧치라고 나는 생각한다. 불교는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다. 경전은 더 이상 기댈 권위가 아니었고, 사찰은 더 이상 성스러운 공간이기를 그쳤으며, 스승은 더 이상 불법의 화신이 아니었다. 운문은 진리를 둘러싼 교(敎)와 선(禪)의 모든 소란을 잠재워버렸다. 운문의 고함소리에 우리는 흠사 실컷 울다가 "누가 죽었지?"하며 좌우를 돌아

성불로 이끄는 방편의 두날개

돈오 "중생이 곧 부처" 점수 "때부터 벗기라"

묻혀 있고 갇혀 있다. 무명의 거칠고 두터운 때를 벗지 않고서는 너는 부처일 수 없다. 그렇게 점수는 말한다.

내가 보기에 점수는 깨달음 이후의 보임(保任)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돈오와 더불어 동시적 구조를 갖고 있는 방편의 두 날개이다. 즉 돈오 이후에 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오와 더불어 점수가 있다는 말이다. 새가 두 날개를 움직여 창공을 날듯이, 수레가 구르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바퀴가 필요하듯이, 돈오와 점수는 선뿐만 아니라 불교의 건전한 활력을 위해 동등하게 필요한 두 방법적 굴대라고 생각한다.

선의 초기에는 물론 돈오가 제창되어야 했다. 달마의 돈오는 의타(依他)와 비관의 완강한 현실에 부딪쳐 소림사의 산중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몇대를 거쳐 힘을 얻은 돈오는 육조(六祖) 혜능(慧能)에 이르러 체제를 정비하고 사회적 동력을 얻는다. 그 이후 돈오는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마조(馬祖)는 돈오를 앞세우되 점수의 방법적 균형을 잘 잡아준 거장이었다.

그렇게 발전한 돈오는 임제와 운문에서 극에 달한다. 임제는 신체와 더불어 활동하고 있는 정신 자체를 절대화했다. 이른바 무위진인(無位眞人)이 그것이다. 그의 포효 앞에 세계보는 사람처럼 얼떨떨해 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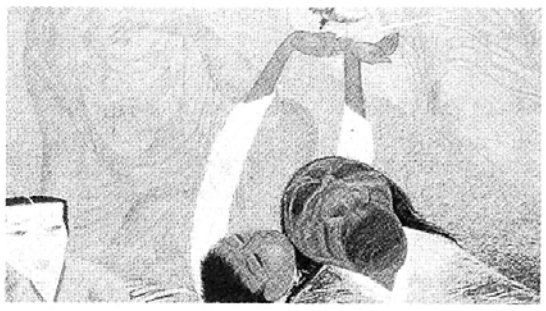
음양의 진실에서 보면 모든 발전의 극은 쇠퇴의 시작이다. 운문 이후 선은 황금시대를 지나 길고 긴 쇠퇴와 하강으로 이어졌다. 그 바탕에 나는 '돈오의 과잉'이 있다고 믿는다. 주지하다시피 당말과 송대는 지식인들의 사회적 각성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무너진 기강을 세우고 정치적 부패와 무능을 광정하기 위한 유교적 이념이 적극 부흥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선의 개인주의와 탈권위주의, 그리고 비도덕적 지향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자주 도마에 오른 것이 방거사의 표어인 "작용시성(作用是性)"이다. 절대의 경지는 현실과 이원화되지 않는다는 진실을 그는 "아하, 신기하고녀. 내가 섶을 지고 물을 나르다니(神通幷妙用, 運水及搬柴)"라고 감탄했다. 그러나 이곳은 어디까지나 다가가야할 본원이지 오탁한 현실의 모습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된다.

돈오의 제창은 자칫 현실과 이상을 일원화함으로써 불교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돈오의 제창에는 점수의 동시적 균형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선은 혜개의 평을 뼈아픈 역설의 충고로 읽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걸핏하면 똥막대기를 가져다가 문짝을 떠받치니 불법의 흥쇠를 가히 알겠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數로 배우는 불교

〈40〉



◇김영덕 作 「새야새야」

병사·익사등 9가지 돌연한 죽음

"슬픔·두려움 깨달음의 계기삼자"

구횡사(九橫死)

고따미 여인은 부처님 당시 사왓티에 사는 큰 재산가의 딸이었다. 그녀는 성장하여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겨우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아들이 물에 휩쓸려 죽고 말았다. 그녀의 슬픔과 충격은 헤아릴수 없을 만큼 컸다. 그때 어떤 현명한 사람이 그녀를 매우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해주었다. "여인이여 당신이 찾아 가야 할 분은 부처님인 것 같소. 그분은 아마도 당신의 슬픔을 치료해 줄 약을 갖고 계실거요" 이말을 들은 고따미는 기원정사에 계시는 부처님께 찾아가 아들의 시신을 보이며 울고 애원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사람이 부처님은 제 아들을 살릴 약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은 여인을 보시고 지극히 가엾게 여기시어 부드러운 음성으로 일러주셨다. "여인이여. 내 그대의 슬픔을 없애주리라. 그대는 곧 마을로 내려가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가지고 오너라. 다만 여인이여, 사람이 한번도 죽어나가지 않은 집에서 얻어야만 되느니라"

이 말씀에 고따미는 곧 죽은 아들을 안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겨자씨를 구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대처러운 바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 집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집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작년에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다오" "얼마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소" "우리 딸도 소에 받혀 죽었소" 결국 고따미는 한 톨의 겨자씨도 얻지 못한채 지친 몸으로 죽은 아들을 땅에 내려 놓은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기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진실을 생각한다면 죽은 사람의 수가 살아있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부처님이 자기더러 사람이 죽은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한 것은 자기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부처님의 크신 자비에 감동하게 되었다. 고따미는 자식의 시신을 땅에 묻고 부처님께 돌아와 자신이 겪었던 일과 생각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런 고따미에게 죽음의 현상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설법을 자세히 해주셨다. 그런 뒤 그녀는 출가를 하여 수행인이 되었는데 어느날 기름 램프의 불이 바람에 꺼질듯 하다가는 다시 살아나는 광경을 보게되었다. 그것은 고따미 여인에게 있어 최상의 진리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모든 생명의 현상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로 사라지면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면 다시 사라진다는 이치를 알게 되었고 누구든지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의 법칙을 예의 관찰하면 마침내 나고 죽음이 다한 경지를 얻게 된다는 결론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었고 그녀는 머지않아 아라한과를 얻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다만 시간과 방법이 다를 뿐이다.

〈약사여래본원경〉에서는 부처님이나 도를 성취한 성현들의 죽음을 제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홉가지의 슬픔에 입각한 비명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 이것을 구횡사(九橫死)라고 하는데 병에 걸렸는데 약이 없는 죽음, 국법에 저촉되어 사형을 받음, 주색에 빠져 정기를 빼앗겨 죽음, 불에 타 죽음, 물에 빠져 죽음, 짐승에게 먹힘, 절벽에 떨어져 죽음, 독약이나 저주로 죽음, 기갈로 인한 죽음이다. 요즘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횡사할 요인은 더욱 많아졌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인간으로서 당하고 있는 불의의 죽음들을 슬픔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법을 깨닫고 해탈을 이루는 계기로 삼느냐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불교와 수학

33

기호화

김 용 운

양자 세계의 물질 운동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태양 운동은 누가 관찰해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곧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인식하는 일이다. 그러나 양자론이 대상에 더해서는 그 위치를 보면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에 주목하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다(하이젠 베르그의 '불확정성원리'). 나의 그림자를 잡으려 할 때는 이미 그것은 한 걸음 앞에 나가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나 할까!

이것은 무의식 세계를 파헤치는 심층 심리학의 근본 문제와도 같은 것이다. 즉 '나의 무의식을 의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무의식을 의식의 표면에 떠올리게 되면 이미 무의식이 아니다. 굳이 무의식을 의식할 때는 그 단편을 엿보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의식화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의식할 수 없다. 죽었을 때는 의식이 없는 것이고, 의식하는 동안에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무의식 중,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과 같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38

지방의 태수가 임제(臨濟)선사의 명성을 듣고 설법을 청한 일이 있었다. 임제화상은 도저히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언어도단'인 진여(眞如)의 세계를 설명하게 된 것이다. 임제는 태수의 권유에 못 이겨 자리를 잡았다. 그는 "나는 입을 열 수 없고 당신은 발을 디딜 자리가 없다"고 그 심정을 말하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그 세계를 보이기로 했다.

첫번째 스님이 임제화상의 부름에 따라 등장하여 임제에게 묻는다.

"불법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임제는 '할(喝)'이라고 소리쳤다. 이때 물음을 던진 스님은 공손히 임제화상을 향해서 절하며 물러가려고 한다.

그림 · 최주현

禪 언어도단 불성 온몸으로 표현

수학 극미·극대의 논리 전개 기호화

그러자 임제화상은 "응, 너와는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선문답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만으로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상의 사실을 정리해 보자.

스님: 불법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임제: 喝.

스님: (큰절을 한다)

임제: 그 정도면 말 할 수 있다.

선(禪)에서는 喝로써 언어도단(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 세계의 일단을 보인다. 한 인간의 전존재(全存在)를 내던지는 존재 양식을 기호화한 것이다. 언어 세계를 초월하는 인간 존재의 참뜻을 표현하는 일은 몸 전체로 하는 행동적인 양식, 즉 기호일 수밖에 없다. 불법은 그림의 떡과도 같은 객관적인 것은 아니며 살아있는 인간의 참모습이다. 자신에 내재하는 불성을 온몸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할로 표현된 것이다. 이미 대오(大悟)의 경지에 선 임제는 그것으로 그 세계를 나타냈다. 그에 대응하는 스님도 말로는 대응할 수 없고 남은 방법은 오직 몸 전체로 표현하는 것뿐이다. 그는 크게 절하며 그 뜻을 헤아렸음을 알렸다.

말로는 말의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말을 초월한 세계에는 오직 몸 전체로의 대응이 있을 뿐이다. 그것을 알아차린 임제는 "가히 그 정도면 말 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화해서 말로 표현할 때는 이미 그 본질이 닳아버리고 만다. 그러나 그 단편의 기호로나마 상징화되었을 때는 그 일부만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수학을 두고 '무한의 과학'이라고도 한다. 처음 무한과 씨름하게 된 대수학자는 그 내용을 남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의식했다.

보다 작은 0.01, 그 보다 작은 ……, 0.0000000000 … 001, …… 보다 작은 세계를 의식한 수학자는 그것에 당황하면서 그 극미의 세계에서 전개되는 논리에 신비성마저 느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개인의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수학 세계의 공유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호화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0.1, 0.01, 0.001, ……, 0.0000000000 … 001, …… 이라는 사실을 기호화하여 $x \to 0$의 표시로 기호화했다. 또 10, 100, 1000, 10000, …… 10000000000 … 00, …… 을 기호화하여 $x \to \infty$로 한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玉혼합원사 · 건강防災服

조내의 內衣

항균성 음이온발생 99.9% 54.8PPM

젊음유지 건강회복

맑은 머리 고운 피부

옥을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玉으로 온몸을 쭉 감싸 주는 것입니다.

중국 河北省 高城지방에서 출토된 前漢시대 劉勝의 金縷玉衣 신강옥으로 만든 2천 498매의 옥조각과 1천 100g의 금실로 되어 있다 2000년전에 죽은 황의 시체의 피부가 탄력이 있었다

옥이불과 함께 빅히트 상품

● 피로감 감소, 병후회복 회춘의 현저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유해전자파 방어에 특효입니다.

● Kirilian+BIO=건강신물질

이 옷을 입으면 중국황제 유승의 金縷玉衣를 입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男女각각)

각종 성인병과 질병에 사용되어온 고대 중국의 신강성 백옥은 수백년전에 생산이 고갈되고 현재는 춘천玉山家玉만이 세계 유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合掌 777-0105 (우편판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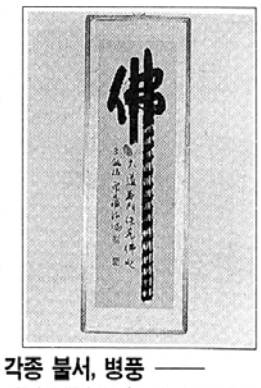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禪筆(眞品) 佛子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入試家庭의 幸運을 위하여 승진 · 사업번창의 幸運을 위하여 연성지법 무병장자의 영험책 재물를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송 시경정근하세요.

神秘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의지처입니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 모집(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 선착순 한정본(품)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 (02)242-0331 · 242-0255 (야)216-0307

진리의 섬에서 파도소리를 觀하며,

제2차 송광사 「송광암」 겨울 수련회 안내

거금도, 진리의 섬에 있는 송광암은 고려시대 보조국사께서 창건하신 수련도량입니다. 스님의 정혜쌍수, 결사정신을 바탕으로 겨울 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수련회 일정표 "3박 4일"(목~일)

차주	비 교	연 령	대상	모집인원	회비	날 짜(기간)
1차	초심반	20~55세	일반인	30명	8만원	97.12월18일~12월21일
2차	〃	〃	〃	〃	〃	97.12월25일~12월28일
3차	응맹정진반	〃	〃	〃	15만원	98. 1월 1일~ 1월 4일
4차	초심반	〃	〃	〃	8만원	98. 1월 8일~ 1월11일
5차	〃	〃	〃	〃	〃	98.1월15일~1월18일
6차	〃	〃	〃	〃	〃	98.1월22일~1월25일

2. 수련내용

① 묵언 ② 香功(선체조) ③ 수심결 강의

④ 행선(금장해수욕장, 용두봉) ⑤ 금당도, 소록도 관광(회향일)

3. 접수요령 : 주소, 이름, 전화, 주민등록번호, 종교, 신청소감을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12월 10일까지 보내시기 바람

4. 교 통 편 : 서울 - 광주(고속) / 서울 - 순천(기차) / 서울 - 녹동(직통) / 서울 - 여수(비행기) / 부산 - 순천(벌교, 녹동) → 녹동 - 금진행 (배로 15분거리) → 송광암

5. 회비납부 온라인

■ 우체국 501023-0039351-17 (일선)

■ 농 협 617073-52-068116 (일선)

6. 연 락 처 : 우)548-930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산74 송광암

전화 : 0666)843-8488, 전송 : 842-7307

암 주 일 선 합장